

바실리 스탈린에 대한 의외의 평가

레닌의옆머리

B. I. 스탈린 중장은 1948년 초에 모스크바 군관구 공군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그는 군관구 예하 공군부대들의 전투능력 향상과 전투준비태세 강화에 주력하였다. 또한 노후 항공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기존 비행장 개보수와 새로운 비행장 추가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관사 및 복지시설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엄격하지만 감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태만한 사람에게는 가혹했으나 공정했다. 그는 진정으로 공군과 조종사를 사랑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스탈린 장군이 군관구 공군사령관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된 어느 이른 아침, 사전 예고 없이 쵸플로이 스탠 비행장을 순시하고는 비상을 발령했다. 연대 작전당직인 몰로토프 소위는 절차대로 비상소집 조치를 취했다. 5~6분이 지나자 기지 당직사령 리이코프 소위가 지휘소에 당도하여 비행장 현황을 사령관에게 브리핑했다. 그러나 연대의 비상소집 상태는 엉망이었다. 30분이 지나서야 연대 부참모장 보로실로프 소령이 지휘소에 도착했을 뿐 연대장과 참모장은 보이지 않았다. 사령관이 말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스탈린 사령관과 보로실로프, 몰로토프와 리이코프가 모여 있는 가운데 연대는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다. 연대장과 참모장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 비상을 해제하고 강평을 하면서 사령관은 연대 지휘관 참모를 호되게 질타했고, 조직과 체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는 비행장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연대장은 소련방 영웅인 A. S. 쿠마니츠킨 소령으로 교체되었다. 이렇게 스탈린 사령관은 많은 문제점들을 전격적으로 때로는 유머도 섞어 가면서 해결하였다.

스탈린 장군은 스포츠에도 열광했다. 그의 주도로 축구, 하키, 수구, 승마 등 많은 스포츠팀이 결성되었다. 그는 이들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스포츠 시설을 건축했는데 그 시설물들은 현재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언젠가 군관구 공군사령부에서 경축행사가 끝나고 연주회가 열렸는데, 모스크바 극장의 유명한 배우들이 공연에 참가했다. 훌륭한 오페라 가수인 코즐롭스키가 무대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늘 부르는 ‘밤’이라는 곡 외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 스탈린 장군에게 물어보았다. 스탈린 장군은 ‘어두운 밤’이라는 노래를 신청했다. 그런데 코즐롭스키는 전쟁 중 불리었던 이 노래를 모르고 있었다. 코즐롭스키에게 노래 가사가 전달되고 그가 멜로디를 익히는 동안 관객들은 자리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가사를 적은 종이를 보며 그 노래를 부르고 나자 관객들은 열광의 박수를 쳤다. 이후 코즐롭스키는 자주 그 노래를 불렀다.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 사망 후 스탈린 중장은 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선고받았는데 내 생각에 그 재판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었다. 스탈린 중장은 1962년에 사망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예브게니 페펠랴예프 대령의 회고록에 쓰인 바실리 스탈린에 대한 내용인데 아버지 뻘 믿고 설치댄 망나니라는 서방의 인식과는 매우 상반된 평가라 의외였음.